

##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 도시와 농촌의 비교

홍미나\*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과 일반적·제도 신뢰 요인이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관계가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위나 집회 참여, 탄원서 제출 등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에 비해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 교량형 결사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에는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도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 조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도시에서는 제도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에는 부정적이지만, 농촌에서는 제도적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민주주의 위기의 추세에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집합적 소셜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를 모색하였다.

**주제어:** 사회적경제, 사회적 참여, 비제도적 정치참여, 제도 신뢰, 도시와 농촌

\* 주저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 1. 서론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 서구의 경우, 1960~1970년대 행정국가화 현상은 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전문 관료 집단에 국가 정책 결정의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서 시민 요구에 대한 정부 대응성 저하, 입법부 위상의 약화와 같은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이승종·김혜정, 2018). 1970년대 말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대두되었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에 있다. 근대 시민의 능동적, 주체적, 적극적인 참여는 현대에서 수동적, 객체적, 소극적인 역할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 중심의 참여민주주의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주성수, 2006).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정책 결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시민의 매개 역할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EC, 2000). 그러나, 현실은 ‘시민참여의 부재’,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이후에는 일반적 신뢰 수준의 저하와 함께 사회단체 참여나 자원봉사 참여와 같은 자발적 시민참여율이 이전 시기보다 더욱 급감한 것으로 보고되어<sup>1)</sup> 저조한 시민참여의 추세가 더욱

---

1) 한겨레(2022.3.15.) ‘코로나19 이후 사람 못 믿어… 대인 신뢰도 역대 최저치’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880.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880.html)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참여의 불평등,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는 단순히 시민사회나 NGO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부 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시민과 NGO의 참여가 정부와 정책을 지지해주는 한도 내에서만 유용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주성수, 2018). 한국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을 사회적 자본의 결핍에서 찾는 연구들은 서구 민주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결사체 참여를 통해 정치적인 신뢰와 사회적 신뢰 형성을 촉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재열, 2006; 박희봉·이희창, 2009). 이러한 서구 국가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보다 낮게 나타나며, 다양한 정부 조직들에 대한 신뢰 역시 낮게 나타난다(박준 외, 2019). 또한 1987년 이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창자(advocacy) 활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은 미흡하다고 지적된다(고동현 외, 2016).

한편, 최근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과 실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모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기반한 시민사회로 볼 수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목적 추구에 포용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

지만, 풀뿌리 시민사회의 준비된 역량과 대응이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힘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은 정부 의존성의 심화와 시민사회 자율성의 약화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장원봉, 2006).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참여와 사회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제3 섹터 영역으로 자리 잡는 배경이 되었다(Evers & Laville, 2004). 사회적경제 영역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부문과 유사한 측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직 운영원리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장종익, 2019).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참여,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 이해관계자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규범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상일·조인영, 2022). 따라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구축(Co-construction) 가능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운영 요소를 포함하는 ‘민주주의 학교’ 로서(Borzaga & Deforuny, 2004)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민참여 확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방식과 일반적·제도 신뢰 요인이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확장으로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지역 특성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반영하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시민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배태된 시민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 요인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다차원적 속성을 갖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보다 차별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시민참여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러한 시민 의사의 투입과 감시, 통제 활동을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고유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주권적 시민의 역할은 시민참여라는 수단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시민의 행위'라고 볼 때, 시

민참여 행위의 대상에 따라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Verba et al., 1995; 주성수, 2006). 최근에는 시민참여 영역이 정부의 구성이나 정책에 관여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이나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정부 영역 외 시민 활동은 정치적 참여와는 다른 사회적 참여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류태진, 2014).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유형을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결사체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참여와 선거운동이나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 방식과는 다르게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에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1) 사회적 참여

사회적 참여는 일반적으로 비영리 부문의 시민사회 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는 정치적 참여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민사회가 조직화하는 다양한 결사체 가운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와 같은 교량형 결사체에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사회적 참여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Brint & Levy, 1999), 정치참여와는 구별되는 방식의 시민참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Verba 등은(1995) 정치적 참여와 비정치적 참여를 구분하면서 비정치적(사회적) 참여 역시 정치적 참여를 위한 유용한 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참여에 필요한 동기부여와 능력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비정치적 제도하에 있으며, 이러한 사회제도적 관련성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동원 네트워크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인 정치적 관심과 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구분한 Putnam(2000)은 노동조합, 시민운동 조직을 교량형 사회자본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교량형 결사체 참여가 기부나 자원봉사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교량형 결사체의 특성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나 다른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Warren(2001)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제도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자율성이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자발적 결사체 참여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운영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순수한 의미의 시민사회로 간주하였다. 시민단체는 다른 집단 보다 일반적인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상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주성수, 2018), 이는 시민단체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수평적 결사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봉사 조직 활동 역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Evans & Syrett, 2007; 한상일 외, 2021).

지역주민 참여 활동과 지역사회의 로컬거버넌스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박희봉(2006)은 로컬거버넌스에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참여 행태는 정치적 참여유형보다 비정치적(사회적) 참여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에는 정치적 참여보다 사회적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 방식이 지역사회 로컬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2) 정치적 참여

정치적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의미하며(이숙중·유희정, 2010), 유무형의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은 선거나 정당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나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선거 참여와 같은 관례적 참여보다 서명, 시위, 시민단체 활동과 같은 비관례적인 참여가 제도화된 정치과정이 되고 있다(주성수, 2006). 이러한 정치참여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향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명한다. 그간 연구자의 관심이나 제도에 따라 정치참여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었는데 특히,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유형은 사회적경제 영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급되었다(한상일·조인영, 2022).

제도적 참여는 절차나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참여 행위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이나 투표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제도적 참여는 집회나 시위 등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정책 전환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강은주·이숙중, 2020). 주로 개인적 차원의 비제도적인 참여 방식은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온라인상의 의견 피력,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청원서의 직접 제출이나 시위 참여, 불매운동과 같은 경험에 포함될 수 있다. 의회 활동이나 선거나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는 정부의 의사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제도적 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나 의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 2)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신념을 갖지 않을 거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신뢰는 개인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 조직, 국가 등 사회적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활동 과정에서도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경제활동을 보다 용이하고 활성화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신뢰는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lmond & Verba, 1963).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일반적 신뢰와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일반적 신뢰

일반적 신뢰는 불특정한 일반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Uslaner, 2003). 이러한 일반적 신뢰의 특성은 특정한 친분관계에 기반한 ‘특정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는 달리, 다양한 멤버십을 통한 개방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외부집단과의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이러한 일반적 신뢰와 시민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집단적 목표를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뢰가 중요한 기반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인 신뢰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신뢰는 민주적 제도를 통한 협력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민사회의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Putnam(2000)은 일반화된 신뢰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협소한 관계의 대인 신뢰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개인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일반적인 대인 신뢰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며, 학연이나 지연 등 개인이 소속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나 결속 정도가 높다고 해서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차적이고 개인적, 비공식적 관계보다는 공식적이고 교량적(bridging) 특성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의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민참여와 일반적 신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소 비일반적인 편이다. Stoll과 Rochon(1998)은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 신뢰를 형성한다기보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axton과 Benson(2005)은 선거를 통한 지역사회 정치참여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비영리조직 성장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반적 신뢰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지역의 개인은 비영리 조직 참여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활동에 대한 기회 접근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단위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공동 상권의 개발 및 농어촌 사회의 ‘계’와 같이 집단 내 강한 결속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속

형 신뢰에 비해 일반적 신뢰는 지역사회의 공유가치와 행동에 기반하는 집합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계층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교량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형용, 2009). 개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에 따라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가 형성된다고 본 박병진(2007)은 일반 신뢰가 높은 개인은 사회나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반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 참여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결과는 비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인 및 제도적 신뢰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박선영·배광빈, 2020), 대인 신뢰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민주주의 인식이 사회적경제 참여에는 부정(-) 영향을 미치거나, 제도적 신뢰는 민주주의 만족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최예나, 2019). 반면, 일반적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거나(홍미나, 2023), 제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일반적 신뢰가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사회적경제 참여 의사가 높아진다고 확인되었다(이경미·한상일,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의 유형을 대인 신뢰로 볼 수 있는 일반적 신뢰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라 볼 수 있는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제도적 신뢰

제도적 신뢰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같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제도(institutions)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Paxton, 1999). 즉, 제도적 신뢰는 시민들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구성원들

의 편익을 산출하는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신뢰가 대인 간 신뢰를 의미한다면, 제도적 신뢰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제도적 신뢰는 정부의 운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시민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 등 민주적 측면의 시민 활동이 감소하게 되며 시민들의 공적 무관심을 유발해 무임승차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최예나, 2016).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와 같은 제도적 참여에는 적극적일 수 있으나, 정부 신뢰가 낮다면 시위나 집회 참여 등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이숙중·유희정, 2010; 송경재, 2013), 제도적 신뢰가 개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제도적 신뢰가 오히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Kaase(1999)는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에 비합법적 형태의 정치참여가 일어나며, 정부 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개인들이 정치참여 자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제도적 신뢰가 높은 개인은 정치참여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 간의 영향은 매우 약할 수 있다(이양수, 2006). 따라서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이 항상 주민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시민참여, 신뢰, 그리고 사회적경제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 등 사회적 자본 요인과 시민참여는 민주사회 형성에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시민참여를 가져오고 시민참여는 유의미한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을 형성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이러한 시민참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Stoll & Rochon, 1998; 하상근, 2018).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듯하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시민참여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시민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사회적인 무관심의 증가와 시민참여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대안적 경제활동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분배를 목적으로 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 참여경제 방식으로 운영된다(장원봉, 2006). Defourny(1992)의 규범적 정의에서 나타나듯, 사회적경제는 ‘연대, 자율성 그리고 시민성 위에 마련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결사체’로 구성되며, 조직 목적 추구를 위한 구조적 절차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 섹터와 사회적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람에게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섹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발견된다(장종익, 2019).

사회적경제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립을 통

해 공동체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 대의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표하는 과정이나 총회에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절차 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개방적인 운영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한상일·조인영, 2022). 이러한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대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Borzaga & Deforuny, 2004).

그러나, 그간 국내 사회적경제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원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시민참여의 확대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 위기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가능성으로서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4)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불평등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문화자본과 마찬가지로 은폐된 형태로 등장하고,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이영재, 2018),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 갖는 정보와 자원을 제한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홍경준, 2001). 이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거주 공간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적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공간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

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활동에는 지역사회 특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홍미나, 2023).

그간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며, 이러한 지역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의 불균형적인 분배는 도시의 주거지 분리를 야기하고 사회적 관계의 질을 저하할 수 있으며(Uslaner, 2003), 지역사회 내 계층 간 분화는 주민 간의 동질감을 저하하면서, 사회참여를 더욱 저조하게 할 수 있다(Costa & Kahn, 2003).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은 제도적인 정치참여를 줄일 수 있으나(Verba et al., 1995), 반면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방식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허석재, 2015). 이러한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특성은 사회적 배제와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대안적 형태로서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 산업화 전략을 토대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서구사회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장기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결사체의 형태로 전환되었다면,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은 전통적인 공동체는 연고주의로 변형되어 온존하면서, 시민참여 공동체보다는 닫힌 연고 지향적 공동체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열, 2006). 결사체 사회(gesellschaft)는 도시를 공간으로 직업적, 경제적 이익을 공

유하는 이익단체나 동호회, 그리고 사회적 신념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회운동 단체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사체에 참여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사회는 다양성을 지닌 네트워크의 형성과 참여 측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다(하성규·박기덕, 2011). 이러한 점은 농촌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 간 상호작용이 미약하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연고형 공동체 문화가 갖는 폐쇄적 소속감이 외부환경에 대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이재열·남은영, 2008), 강한 유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외부인에게는 차별과 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 농촌지역의 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사례와 같이, 원주민의 강한 내부적 결속감이 귀농과 귀촌으로 유입된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거나(안민지, 2017), 공동체 내부 규범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나 집단주의적 규범이 주민의 개별적인 행동을 차단하고 오히려 공동체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황영섭, 2021). 그러므로, 결속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항상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Evans & Syrett(2007)은 유럽 8개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사회적경제 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사회적기업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주로 인구당 자발적 결사체의 숫자가 많은 도시지역이었으며, 교량형 단체 참여가 빈번한 도시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고유의 사회적 자본에 의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종교, 인종, 관심사를 포용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심화, 기반 시설 부족,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 한국의 농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20년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개소 수는 도시지역보다 적지만, 실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소재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21.9). 이러한 점은 농촌이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도시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농촌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시민참여 확장으로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갖는 의미를 정치적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과 일반적 신뢰, 제도 신뢰 요인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관계가 도시와 농촌의 지역 조건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과 일반적 신뢰, 제도 신뢰는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과 일반적 신뢰, 제도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제공하는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조사 대상 일반 시민 가운데,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도를 설문 문항에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문제를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이 자료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라 과대 추출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 사회적경제 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2021년' 자료의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었으며, 최근 가장 높은 사회적경제 참여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 응답자 8,077명 가운데, 과거나 조사 시점까지(2021.9)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이하 '참여') 1,615명과 전혀 소속 경험이 없는 응답자(이하 '비참여') 6,462명이다.

분석 방법은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분석, 도시와 농촌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중

속변수인 사회적경제 활동 정도를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이다. ‘2021년 사회통합 실태 조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림 1]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유형별 사회단체의 활동 추세를 보여준다. 3개 유형의 사회단체 가운데, 자원봉사 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율은 시민운동단체 참여율보다 높지만, 3가지 유형의 사회단체 모두 참여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바로 이전 조사 시기인 2019년에는 3가지 사회단체 모두 참여율이 급상승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3가지 유형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모두 급락하였고,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율의 증가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 제도 신뢰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신뢰는 일반적 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보편적인 대인 신뢰를 의미한다(Warren, 2001). 이에 반해 제도적 신뢰는 지역사회 존재하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므로(Paxton, 1999),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의 평균 점수를 이용하였다.

[그림 1] 2015년~2021년 사회단체 유형별 활동 추세(지난 1년간 소속 경험 기준)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시민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행위의 대상에 따라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하상근, 2018).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선거운동이나 투표와 같이 정부의 의지나 제도에 의한 접근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비제도적 채널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 참여, SNS를 통한 의견 개진, 서명운동이나 불매운동 등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의 7개 유형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sup>2)</sup>(Cronbach’s  $\alpha = .936$ ).

사회적 참여는 개인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단체와 같은 교량형 결사체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여 평균 점수를 활용

2) 원 조사자료에서 비제도적 정치참여유형은 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탐색적 요인 분석(EFA)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정치,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을 제거하고, 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KMO=.932,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 = 47950.356^{***}$ ).

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 사회적 배경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검증된 변수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 교육연수, 월평균 가구소득 분위, 유급 노동 여부, 이념 성향은 사회적경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구분	변수	설명	측정 방법	
종속 변수	사회적경제 참여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소속 경험 여부	0=소속 경험 없음 ('비참여') 1=소속 경험 있음 ('참여')	
독립 변수	신뢰	일반적 신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4점 척도 (전혀 믿지 않는다, 1 ~ 매우 믿는다, 4)
		제도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시민참여	비제도적 정치참여	S N S 의견 개선	4점 척도 (활동한 적 없으며 향후에도 의향 없음, 1 ~ 지난 1년 동안 활동 경험 있음, 4)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 제출	
			시위, 집회 참여	
			민원 전달	
			불매운동 참여	
	사회적 참여	결사체 참여	시민단체	5점 척도 (소속된 적 없음, 1 ~ 적극적 활동, 5)
자원봉사 기부단체				

통제 변수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대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교육연수	0= 안 받았음, 6= 초등학교 졸, 9= 중졸, 12= 고졸, 14= 2년제 대학 졸, 16= 대졸, 18= 석사, 20= 박사
	월평균 가구소득 분위	소득분위 150만 원 미만(1분위) ~ 1,000만 원 이상(11분위)
	유급 노동 여부	1= 유급 노동(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0= 무급 노동(무급 가족 종사,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이념 성향	1= 매우 보수적 ~ 5= 매우 진보적
	도시와 농촌	거주지역이 '동' 단위는 도시, '읍면' 단위는 농촌

회귀분석에 앞서 사용된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분석 결과 0.8 이상의 상관계수는 확인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일반적 신뢰는 제도 신뢰, 비제도적 정치참여, 사회적 참여, 이념 성향과 정적인 (+) 관계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는 부정적 (-) 관계가 있었다( $p < .05$ ). 가구소득은 제도적 신뢰와도 부정적 관계가 있었는데( $p < .001$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반적 신뢰나 제도적 신뢰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1 제도 신뢰	1							
2 비제도적 정치참여	.017	1						
3 사회적 참여	.029*	.161***	1					
4 가구소득	-.048***	.088***	.152***	1				
5 교육연수	-.008	.074***	.096***	.511***	1			
6 이념 성향	.102***	.063***	.025*	.139***	.243***	1		
7 일반적 신뢰	.234***	.035**	.053***	-.022*	-.018	.085***	1	
8 연령대	.014	-.073***	-.035**	-.337***	-.611***	-.294***	.036**	1
Mean	2.58	1.86	1.45	5.21	13.32	2.91	2.58	3.31
(S.D.)	(.62)	(.91)	(.89)	(2.27)	(2.99)	(.85)	(.56)	(1.45)
왜도	-.224	1.004	1.996	.158	-1.378	.000	-.473	-.286
첨도	-.143	-.044	3.040	-.367	2.873	-.137	-.323	-1.280

\*p < .05, \*\*p < .01, \*\*\*p < .001

연령대의 경우, 비제도적 정치참여, 사회적 참여, 가구소득, 교육연수, 이념 성향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제도적 정치·사회적 참여 수준, 가구소득 수준이 낮으며, 보수적 성향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연령대와 일반적 신뢰 수준은 정적 관계가 나타나 상반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교육연수의 평균은 13.32로 ‘고졸 이상 ~ 2년제 대학졸’ 구간에 해당하며, 가구소득 분위의 평균은 5.21로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의 평균은 2.91로 ‘다소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의 평균은 3.31로 ‘40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도시와 농촌 간 주요 변수의 차이

[표 3]은 도시와 농촌 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독립변수 가운데 일반적 신뢰 평균은 도시보다 농촌이 높았으며( $p < .01$ ), 비제도적 정치참여 평균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다( $p < .001$ ). 제도 신뢰와 사회적 참여의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대를 제외한 교육연수, 가구소득, 이념 성향의 평균이 농촌보다 도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표 3〉도시와 농촌의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평균 차이 분석

변수		Mean(S.D.)			t
		전체 (N=8,077)	농촌 (N=1,366)	도시 (N=6,711)	
독립 변수	일반적 신뢰	2.58(.56)	2.64(.57)	2.57(.56)	4.099**
	제도 신뢰	2.58(.62)	2.58(.63)	2.58(.61)	.180
	사회적 참여	1.45(.89)	1.42(.84)	1.46(.90)	-1.755
	비제도적 정치참여	1.86(.91)	1.74(.93)	1.88(.91)	-4.962***
통제 변수	연령대	3.31(1.45)	3.64(1.40)	3.24(1.45)	9.580***
	교육연수	13.32(2.99)	12.07(3.82)	13.57(2.73)	-13.869***
	가구소득	5.21(2.27)	4.55(2.33)	5.36(2.24)	-11.666***
	이념 성향	2.91(.85)	2.80(.89)	2.93(.84)	-4.671***

주.  $p^* < .05$ ,  $p^{**} < .01$ ,  $p^{***} < .001$

## 2)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신뢰와 사회적경제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비교

유형별 시민참여와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분석 결과이며, 전체 응답자 8,077명과 이 가운데 농촌 거주자 1,366명, 도시 거주자 6,711명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세 가지 모형 모두 통제변수만 투입하였을 때보다 독립변수가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유의미하게 우도비(-2LL)가 감소하였다. 제시한 모형 적합도 모두 유의하였으며(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Nagelkerke  $R^2$ 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는 조사 응답자 8,077명을 대상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일반적 신뢰, 제도 신뢰, 비제도적 정치참여, 사회적 참여가 동시에 투입된 결과이다. 모형의 설명력은 73.1%,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의 정확분류율은 9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chi^2=5009.450$ ,  $p < .001$ ). 투입된 독립변수 가운데, 비제도적 정치참여, 사회적 참여 수준은 사회적경제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01$ ). 즉, 비제도적 정치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자발적 결사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제도적 방식에 의한 정치참여 수준이 높다면 비참여자에 비해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이 1.5배 높으며, 결사체 참여와 같은 사회적 참여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이 14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독립변수를 표준화하여 투입한 결과이므로 비표준화 계수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았을 때, 비제도적 정치참여보다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일반적 신뢰나 제도 신뢰 등 신뢰 수준

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 단체를 매개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거나(한상일 외, 2021), 다른 유형의 단체 참여에 비해 교량형 단체 참여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홍미나, 2023)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탄원서 제출, 시위나 집회 참여와 같은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행위가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박선영·배광빈, 2020; 한상일·조인영, 2022), 적극적 정치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은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비제도적인 정치참여 방식보다 사회적 참여 방식의 사회적경제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결사체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참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최예나, 2019; 박선영·배광빈, 2020)와는 달리,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반적 신뢰나 제도 신뢰는 사회적경제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모형에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 요인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사회구조에 내재한 다양한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자본화(Social Capitalization)되는 것은 아니며(Lin, 1999), 지역 사회 조건에 따른 상호작용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Putnam(2000)은 자발적 결사체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같은 시민사회가 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성이 증가하고 집단 내의 공동체적 민주적 기능성이 향상된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조건이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시민참여, 신뢰와 사회적경제 참여 관계에서 도시와 농촌의 비교

구분	변수	전체		농촌		도시	
		B	Exp(B)	B	Exp(B)	B	Exp(B)
통계 변수	성별(여성)	.032	1.032	-.191	.826	.104	1.109
	연령 30대	-.047	.954	-.758	.469	.140	1.150
	40대	.109	1.115	-.044	.957	.213	1.237
	50대	-.012	.988	.162	1.176	-.032	.969
	60대 이상	.213	1.237	.291	1.338	.211	1.235
	교육연수	-.101***	.904	-.096*	.909	-.088**	.916
	가구소득 분위	.065*	1.067	.028	1.029	.077*	1.081
	유급 노동	.505***	1.657	.808**	2.243	.381**	1.464
이념 성향	.058	1.059	.087	1.091	.060	1.061	
독립 변수	일반적 신뢰	-.050	.952	.007	1.007	-.105†	.900
	제도 신뢰	-.079	.924	.189†	1.208	-.151**	.860
	비제도적 정치참여	.438***	1.549	.269**	1.308	.526***	1.692
	사회적 참여	2.642***	14.044	2.065***	7.882	2.836***	17.055
상수항	-1.758***	.172	-1.510*	.221	-2.134***	.118	
N	8,077		1,366		6,711		
df(χ²)	13(5009.450)***		13(640.879)***		13(4435.224)***		
-2LL	3072.338		713.820		2291.755		
Nagelkerke R²	.731		.595		.764		
정확분류율(%)	92.9		90.2		93.4		

주1. 성별의 준거집단은 남성, 연령대는 20대 기준

주2. † p < .10 \*p < .05, \*\*p < .01, \*\*\*p < .001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을 기준으로 통제변수인 인구 사회적 요인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교육연수( $p < .001$ ), 가구소득 분위( $p < .05$ ), 유급 노동 여부( $p < .001$ )는 사회적경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육연수가 길수록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은 작으며, 가구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유급 노동은 무급자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등은 사회적경제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밀접한 대인관계의 결속형 네트워크에는 지역사회 수준의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단체나 교량형 네트워크 참여는 가구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단위 경제적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김형용, 2009), 사회적경제와 같은 교량형 단체 참여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수준과 사회적경제 참여의 관계는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 모두 비제도적 정치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을 조직화한 교량형 결사체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신뢰 요인은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즉, 제도적 신뢰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이 1.2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 < .10$ ). 반면, 도시에서는 제도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회적경제 비참여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 < .01$ ).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뢰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제도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나 공동체 의식이 비슷할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 거주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는데(한상일 외, 2021), 이는 지역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농촌은 도시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고령화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도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나 자원들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이 농촌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뢰와 주민참여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나 제도 신뢰가 낮으면 시위나 집회 참여와 같은 비제도적인 정치참여에 적극적이거나(이숙중·유희정, 2010), 정부 신뢰가 강한 경우 개인들이 정치참여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Kaase, 1999), 제도적 신뢰에 있어 도시와 농촌의 상반된 차이가 사회적경제 참여의 다른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도시는 농촌에 비해 비제도적 정치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표 3) 참조), 비제도적 정치참여나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가 농촌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도적 신뢰 자체만으로는 사회적경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조절 변수로 하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최예나, 2019)와 유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은 일반적 신뢰나 제도적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화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의 익명성이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며, 신뢰와 규범의 사회적 자본은 도시보다 농촌이 높게 나타나지만, 네트워크나 주민참여는 도시에서 더욱 활발하다는 결과 내(하성규·박기덕, 2011),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은 제도적 신뢰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박병진, 2007)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내 농촌사회는 시공간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공간인 동시에 생산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등 도시와는 다른 구조적 특성이 있다(김기홍, 2006). 그리고 농촌의 공동체는 유교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계산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도시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황영섭, 2021). 이러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특성은 도시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이나 시민참여의 조직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나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면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활성화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시민참여의 확장으로서 사회적경제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정치적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비제도적 정치참여 방식과 일반적·제도 신뢰 요인이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관계가 도시와 농촌의 지

역 특성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같은 시민참여 방식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과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은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시위나, 집회 참여, 탄원서 제출과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정치참여 유형에 비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을 연결하고 정보 흐름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적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매개적 역할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은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적·정치적 역량을 조직화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합적인(collective) 소셜 임팩트를 강화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일반적 신뢰나 제도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 조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도시에서는 일반적 신뢰나 제도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농촌에서는 제도적 신뢰가 사회적경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비제도적 정치참여나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신뢰와 참여의 사회적 자본요인이 사회적경제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와는 구분되는 농촌지역의 인구, 사회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사회적경제 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민참여의 패러다임으로서 갖는 함의가 있다. 그리고 그간 국내 사회적경제의 전개 과정은 정부 정책이 부여하는 법적 지위나 제도적, 재정적인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사회적 권력 확장을 위한 대안적 경제 운동으로서 갖는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동이 갖는 가치와 성과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단체나 사회 조직들과의 소통과 협력,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작동방식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인 역량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권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 활동의 정체성은 국가 중심적인 하향적 거버넌스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학습하는 ‘민주주의 학교’로서 실천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 확장으로서 사회적경제 참여가 갖는 의미를 정

치적 영역과의 관련성에서 접근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의 맥락에서 시민참여와 신뢰의 사회적 자본 요인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 자본 요인 간의 상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tion)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신뢰와 결사체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속성은 지역 사회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서도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더욱 구체적인 접근은 향후 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자료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소속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로 편중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범위를 통제하는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을 의미한다.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조사 시점에서 ‘과거에 소속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응답자와 소속되어 활동하는 응답자를 ‘참여’하는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과제로 남긴다.

(2023년 4월 5일 접수, 5월 11일 심사완료, 5월 22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은주 · 이숙종. 2020. “사회자본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1).97-128.
- 고동현 · 이재열 · 문명선 · 한솔. 2016.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기홍. 2006. “농촌 마을 사회자본 탐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농촌사회』, 16(1).7-42.
- 김형용. 2009. “지역사회 빈곤과 배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한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203-226.
- 류태건. 2014. “사회 자본론의 시각에서 본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관계: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467-468.
- 박병진. 2007. “신뢰 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 사회학』 41(3).65-105.
- 박선영 · 배광빈. 2020.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포용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1-23.
- 박준 · 김상근 · 유자영 · 이영라. 2019.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사회역량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기본 연구보고서. 1-328.
- 박희봉. 2006.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회보』, 10(2). 1-23.
- 박희봉 · 이회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43(4).105-128.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2).224-227.
- 안민지. 2017. 「농촌사회 변화에 따른 농촌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인식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한상일. 2023.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의사간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서울시민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1).101-137.
-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287-313.
- 이승종·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제2판)』.박영사.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25-43.
- 이영재. 2018. “사회적 자본 개념의 미분화 비판.” 『정치사상연구』. 24(2).143-166.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 이재열·남은영. 2008.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42(7). 178-214.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나눔의집.
- 장중익. 2019. “사회적경제 개념에 관한 고찰: 비영리 섹터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연구』.12(3).35-61.
-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서울:아르케.
- 주성수. 2018.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연구.” 『지방정부연구』 20(3).69-88.
- 최예나. 2019.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 민주주의 인식도와 제도적 소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2).1-32.
- 하상근. 2018.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30(4).909-937.
- 하성규·박기덕. 2011.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서울 아파트단지와 여주 농촌 마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2(4).133-153.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21.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경제지주사회사.” 웹진 『협연연구정보』(2021.09). [http://www.coops.or.kr/bbs/board.php?bo\\_table=01\\_2&wr\\_id=205](http://www.coops.or.kr/bbs/board.php?bo_table=01_2&wr_id=205)
- 허석재. 2015. “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한국정당학회보』 14(3).41-67.
- 한상일·박주희·유한나.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161-196.
- 한상일·조인영. 2022. “사회적경제 참여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33(2).67-89.
- 홍경준. 2001. “빈곤에 대한 또 다른 탐색.” 『비판사회정책』.9.165-192.
- 홍미나. 2023. “사회적 자본 유형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 권 거주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1).167-194.
- 황영섭. 2021.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개발사업 참여 의지의 형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albert, Evers and Jean-Louis Laville. 2004. “Social Services by Social Enterprises: on the possible construction of hybrid organization and a civil society”, “Defining Third

- Sector in Europe” in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 Almond, Gabriel A. & Verba, Sy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rzaga, Carlo and Jacques Defourny. 2004.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ledge.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Spain, Sweden, UK)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Richardson, J.H.(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York: Greenwood Press.
- Brint, S., and Levy, C. S. 1999. “Professions and Civic Engagement: Trends in rhetoric and practice.” in Skocpol, T., & Fiorina, M. P.(ed.).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Russell Sage Foundation.
- Costa D. L. and Kahn M. E., 2003.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heterogeneity: An economist's perspective.” *Perspectives on politics* 1. 103-111.
- EC(European Commission). 2000. “Concise Report of the Debates of the First Convention of Civil Society Organised at European Level.”
- Evans, Mel and Stephen Syrett. 2007. “Generating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4(1).

55-74.

- Evers, A. and Laville, J. L. 2004. "Social Services by Social Enterprises: on the Possible Contributions of Hybrid Organizations and a 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in Europe*. 237-255.
- Kaase, M.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awachi, I., Kennedy, B.P., Lochner, K., and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28-51.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axton, Gregory D., and Michelle A. Benson. 2005. "Social Capital and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Social Science Quarterly* 86(1). 16-35.
- Stolle, Dietlind and Thomas Rocho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Edwards and Foley(eds)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Comparative Perspective*. A thematic issue of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1(5).

Uslaner, E.M. 2003. "Trust, democracy and governance: Can government policies influence generalized trust?" *Generating social capital* Springer. 171-190.

Verba, S., Schlozman, K &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ee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Warren, M. E., 2001.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Department of Government. Georgetown University.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conomy Engagement: A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Minah Hong\**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conomy as the paradigm of civic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sphere. The impact of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and factors of general and institutional trust on engagement in social economic activities were reviewed, and how these relationships change depending on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civic engagement can increase the likelihood of social economic engagement, equally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However, the impact of institutional trust on social economic engagement showed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regional conditions in urban and rural areas. In other words, in cities, the higher the level of institutional trust, the more negative the social economy engagement, while in rural areas, institutional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economy engagement.

**Keywords:** Social economy, social engagement, non-institutional engagement, institutional trust, urban and rural areas

---

\* Researcher, 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Ph.D. in Social Economy.